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만운저수지 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이순호 기자 | 승인 2026.10.30 17:32

만운저수지 둘레길서 환경정화 활동…깨끗한 수변 환경 조성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국제아이저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국제아이저널

[국제i저널 = 이순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박승표)는 지난 29일 안동시 만운저수지 일원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부터 이어온 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이자 친환경 캠페인으로,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이다. 참가자들은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행사가 열린 만운저수지는 안동지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인근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찾는 장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저수지의 수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됐다.

박승표 안동지사장은 "쓰담쓰담 활동을 비롯해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